

상호금융 여신심사 꼼꼼하게 따진다

3월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소득 심사 강화 등 간간해져

오는 3월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심사가 강화되는 등 대출받기도 한층 간간해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64곳(54.7%)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만큼 장기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일단 2~3

년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2.1%에 달한다. 같은 시점에 일시상환 비중이 56.7%인 은행권보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2억원의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000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최, 등 폭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소득 증빙 절차도 한층 간간해진다.

농어민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농경작면적당 산출량, 어업소득 등 추정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고,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또한 현재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상호금융조합에서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료를 따로 제출하거나 그만큼의 인정소득을 적용받아야 한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최초 콜센터 KS인증 획득

전북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콜센터서비스에 대해 KS인증(☞마크)을 획득했다.

KS인증은 국가에서 정한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서비스를 생산·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제도로 보증하는 것으로서 KSA 한국표준협회는 해당업체의 서비스 운영체제와 인적자원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인증은 전북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으로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합상담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업무파트별 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

력한 결과가 인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방은행 최초로 콜센터서비스가 KS인증을 받는 영예도 누리게 됐다.

현재 전북은행의 콜센터(1588-4477) 상담 업무는 신용카드, 전지금융, 대출, 수신 등은 물론 어르신전용, 영어전담, 영영접전화집중, 원격지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데스크' 업무도 개설해 편리성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어가고 있다.

/안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장 건강 도움주는 소시지 개발

'프로바이오틱스' 발효로 유산균 수 약 3배 정도 많아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발효 소시지로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소시지를 만드는데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뒷다리살)를 이용하는 만큼,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뜻하며 유산균이 주를 이룬다. 유해균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

연구진은 염지 처리한 돼지 뒷다리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스타터로 첨가하고 온도와 습도를 4단계로 조절하며 40여일간 발효했다.

이렇게 만든 발효 소시지는 5g정도만 섭취해도 프로바이오틱스 1일 섭취기준(1일 섭취량 1억~100억 개(CFU))을 충족할 수 있다. 무첨가(자연 발효, 상업용 스타터) 소시지에 비해 유산균수는 약 3배 정도 많으면서도 소시지 풍미는 비슷했다.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스타터는 풍미 개선 등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닌 일반 미생물을 사용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소시지를 제조할 수 있는 스타터 균과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고급 육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소규모 육가공 농가(영농법인) 등에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합준산 농업연구관은 "발효유 뿐 아니라 발효 소시지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며,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소시지 생산 기술이 돼지고기 부가가치 증진과 소비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한전 전북본부, 전력분야 국가안전 대 진단 시행

한전 전북본부는 도내 전력설비 전체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한 달 동안 전력분야 국가안전 대 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 대 진단은 대형 안전사고 위험 제거로 사회 안전 확보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 홍보 및 안전산업 발굴, 육성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가안전 대 진단에서는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장, 사육 등 5개 분야 583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자체 점검과 특히 집중 점검 개소에 대하여는 공공분야 직원, 민간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해 3개월 내에 조치하며,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 또는 정밀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수익구조개선·자산건전성 제고 성과

전북농협이 지역 농·축협에 상호금융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농협은 2016년 상호금융평가에서 전북농협이 최초로 상호금융 전국 1위를 달성한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평가한 2016년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도내 93개 지역 농·축협중 21개 농협이 수상해 상호금융 사업의 뚜렷한 약진을 보였다.

상호금융 대상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축협의 경영상태와 수익

성강화, 여신건전성, 고객관리 및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와 사고예방 등 종합적인 상호금융사업을 매분기 평가, 연말에 최종 종합평가해 주어지는 상으로 회장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지난주 발표한 2016년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그룹별 각 1위에 주어지는 우수상에 남원축협, 오수관촌농협, 고창 대성농협이 선정됐다.

그룹별 2위와 3위에 주어지는 장려상에 익산농협과 장계농협, 남부안농협, 운봉농협 등 17개 농·축협이 수상했다.

상호금융대상 사무소가 2015년 5개 농협에서 21개 농·축협으로 대폭 확대된 데는 전북농협과 농·축협이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과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각종 사업추진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상호금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다.

강태호 본부장은 "올해에도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AI, 구제역 등으로 농업인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롯데백, 만석담강정 초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강원도속초 중앙시장 명물인 '만석담강정' 초대전을 진행한다.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에서 30여년간 명맥을 이어온 지역명물로 잘 알려진 '만석담강정'은 가마솥에 170도가 넘는 온도로 튀겨서 보다 바삭한 맛이 특징으로, 속초 중앙시장 현지에서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현지에서 직접 새벽에 배송받는 '만석담강정'은 보통맛과 매운맛 두가지가 있으며 각각 1만7,000원과 1만8,000원에 판매한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배수장 시설물 손상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수지 416개, 양·배수장 604개 시설물의 손상, 균열, 부식, 침하여부 등을 점검하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로 인해 농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직원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총 2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채 본부장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설물 사전점검과 영농급수를 대비한 급수 및 물관리 체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안전영농 급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